

<하기 글은 2018년 10월 25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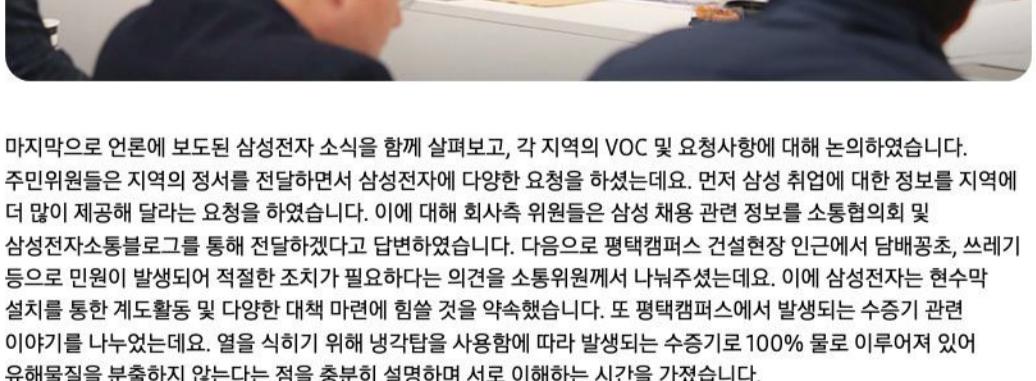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22일, 「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 10월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지역 사회 간 화합을 위해 소통했던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통협의회 의장인 삼성전자 이승백 상무(DS커뮤니케이션팀)의 인사말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평택시민재단」에서 발표한 성명서 관련 보고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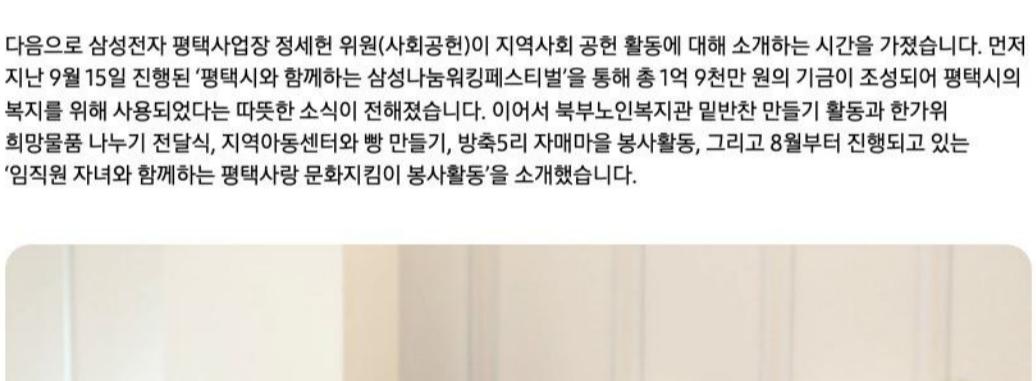
평택시민재단은 지난 8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인근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 지역 상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삼성전자가 '포세카(food service catering)'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대책 마련 촉구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시청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기 라인 건설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은 상가활성화를 위해 하루 30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며, 지역축 위원들께서도 삼성전자가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된 삼성전자 소식을 함께 살펴보고, 각 지역의 VOC 및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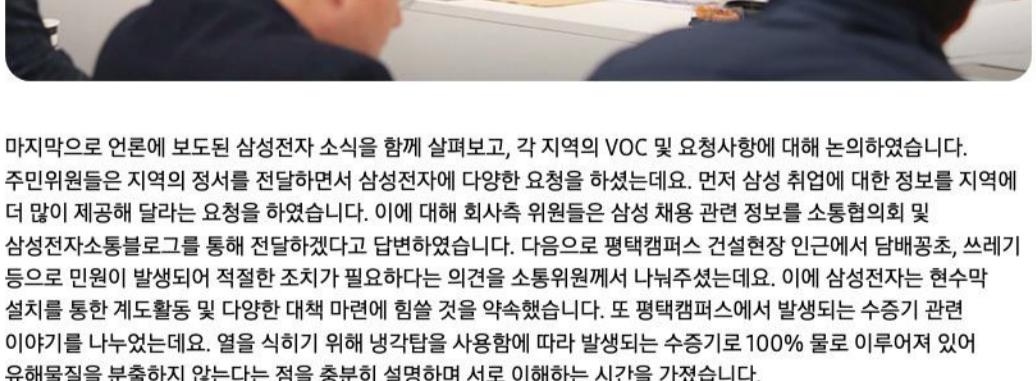
주민위원들은 지역의 정서를 전달하면서 삼성전자에 다양한 요청을 하셨는데요. 먼저 삼성 취업에 대한 정보를 지역에 더 많이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측 위원들은 삼성 채용 관련 정보를 소통협의회 및 삼성전자소통블로그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캠퍼스 건설현장 인근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소통위원께서 나눠주셨는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현수막 설치를 통한 계도활동 및 다양한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평택캠퍼스에서 발생되는 수증기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탑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수증기로 100% 물로 이루어져 있어 유해물질을 분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10월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8일부터 약 2주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펼쳐진 '교통안전 멀로카페 설치'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는 27일 평택시 공무원과 삼성전자 임직원이 합동으로 고덕면 내 연탄사용 저소득층 7가구에 연탄을 배달하는 '희망이음 봉사활동' 계획도 공유했는데요. 10월 30일 평택대학교에서 진행될 '2018 드림樂서 평택', 31일 평택 배다리도서관에서 오픈하게 된 지역 내 어르신 일자리 후원사업 'Café 休(카페 휴)' 소식도 함께 전하며 기대감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2월 주요 활동 계획을 전했습니다. 11월에는 '사랑나눔 겨울 김장축제'를 통해 30톤의 김치를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고, 평택장애인연합회를 대상으로 연합 재능봉사를 펼칠 예정인데요. 12월에는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연말이웃사랑 실천 캠페인', 그리고 자원봉사 공모 시상식을 진행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소외된 이웃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기회의 내내 기업과 지역 간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통협의회 위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상생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할 「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